

# 2006학년도 전국연합학력평가

## 정답 및 해설 (고1)

### • 1교시 언어 영역 •

1	①	2	④	3	⑤	4	④	5	①	6	⑤	7	⑤	8	②
9	⑤	10	⑤	11	①	12	③	13	④	14	①	15	③	16	①
17	③	18	③	19	⑤	20	②	21	②	22	⑤	23	③	24	④
25	③	26	⑤	27	⑤	28	⑤	29	④	30	①	31	②	32	④
33	⑤	34	①	35	①	36	⑤	37	①	38	①	39	②	40	⑤
41	④	42	③	43	④	44	②	45	①	46	④	47	⑤	48	⑤
49	①	50	②	51	⑤	52	①	53	③	54	②	55	③	56	④
57	②	58	①	59	②	60	④								

- 듣 기 -

#### 1. [정보를 사실적으로 확인하기]

[출제의도] 강의에서 제시한 내용을 찾아낼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강의에서 '제침'은 책 표지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써 다른 종이에 써서 앞 표지에 붙인 부분이라고 하였으므로 ㉠에 해당한다. ㉡은 '침안', ㉢은 '어미', ㉣은 언급되지 않았으며, ㉤은 '서각'에 해당한다.

1번. 이제 여러분에게 '옛 책'에 대한 강의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나라의 책 제작 기술은 가히 세계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종이의 질은 중국과 견줄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났으며, 인쇄 기술은 능화관을 이용해 책표지에 무늬를 새겨 넣을 정도로 발달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책을 매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책의 크기에 관계 없이 다섯 개의 구멍을 뚫어 단단히 철하였습니 다. 이때 책을 매기 위해 뚫은 구멍을 침안이라고 합니다. 중국과 일본은 구멍을 네 개 뚫어 책을 매는 4침 안장법이나 6침 안장법, 드물게는 8침 안장법 등 짝수의 철법이 행해지고 있어, 우리와는 사뭇 대조적입니다. 하나의 구멍을 뚫는다는 것은 하나의 기둥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 다섯 구멍은 인, 의, 예, 지, 신을 상징합니다.

옛 책은 낱장의 종이 중앙을 접은 다음, 접하지 않은 부분에 구멍을 뚫고 끈으로 묶었습니다. 이 때 반대쪽 접힌 부분을 판심(版心)이라고 합니다. 판심 중앙에는 책이름을 적고, 그 아래위로 물고기 꼬리 모양의 장식을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어미라고 합니다. 어미는 원래 중국에서 유래된 것이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독자적으로 발전시켜 책의 시대 구분을 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로 삼았습니다. 또한 책표지에 제목을 직접 쓰지 않고 다른 종이에 써서 앞표지에 붙인 것을 제침이라고 합니다. 한편, 책의 아래쪽 여백을 서각이라 하여 위쪽의 서수와 짝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조상들은 책의 구성구석에도 이름을 부여하여 책을 소중히 여기고 간수하는 데 힘썼습니다.

#### 2. [정보의 내용 파악하기]

[출제의도] 대화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대화에서 '남학생'은 젊은 세대 중에도 씨름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으므로 젊은 사람들이 민속 씨름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 반면 기업이 인기 스포츠에는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경향이 있음을 언급했으므로 ㉠과 같은 비판은 타당하다.

2번. 이번에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학생 : 영호야, 뭐해?  
남학생 : 응. 신문 읽고 있어.

여학생 : 눈여겨 볼만한 기사가 있니?  
남학생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 민속 경기인 씨름이 위기에 처했다지 뭐야.  
여학생 : 아, 나도 뉴스에서 그런 얘길 들은 적이 있어.  
남학생 : 우리 민속 씨름이 프로 경기로 부활한 지 20여년 만에 이런 위기에 처했다니, 참 안타까운 일이야. 우리 씨름은 고구려 벽화에서부터 등장할 정도로 역사가 깊고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온 스포츠인데 말이야.  
여학생 : 그러게. 앞으로 더 이상 텔레비전에서 흥겨운 씨름판을 볼 수 없을 지도 모르겠어.  
남학생 : 기업들은 씨름이 젊은 세대에 인기가 없다며 팀 인수를 꺼린다고 해. 하지만 내 또래 중에도 씨름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데. 더구나 축구나 야구 선수들을 스카우트하는 데는 수십억 원을 쏟아 부으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프로 씨름단을 해체하는 것은 아무래도 앞뒤가 맞지 않아.  
여학생 : 맞아. 우리 전통 문화를 지키는 차원에서라도 씨름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정부의 무관심도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  
남학생 : 사실 관중을 모으기 위해서는 씨름의 경기 방식을 개선하고 씨름 스타를 발굴할 필요도 있어. 일본의 스모처럼 자국의 문화를 국제적 관광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데도 우리는 그만큼 노력을 덜었다고 볼 수 있지. 씨름은 결코 한때 '반짝'하고 마는 유행 종목이 아닌데 말이야.

#### 3. [정보를 적절한 대상에 적용하기]

[출제의도] 강연의 청취 대상으로 적절한 대상을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강연에서 '피보나치 수열'이 지니는 의미는 강연의 맨 마지막에 잘 나타나 있다. 자연도 피보나치 수열과 같은 현상이 있는데 이는 자신만이 아닌 전체가 공존하는 지혜를 갖고 있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강연의 청취 대상자로는 ㉤처럼 상수권 다툼으로 가정의 화목을 깨뜨린 사람들이 적절하다.

3번. 이제 여러분에게 강연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부르는 숫자들을 잘 들어보세요. 이 속에는 어떤 규칙이 숨어 있습니다.

1, 1, 2, 3, 5, 8, 13, 21..... 처음 1과 두 번째 나온 1을 더하면 2가 되지요? 2와 그 다음 숫자 3을 더하면 5가 됩니다. 바로 앞의 두 수를 더한 값이 다음 수가 되지요. 이와 같은 규칙으로 이루어진 숫자의 배열을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수학자 피보나치가 발견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피보나치 수열의 예는 자연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해바라기 꽃에 훑훑히 박힌 씨앗을 보신 적이 있나요? 그 속에 피보나치가 말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수많은 꽃씨들이 아무렇게나 배열되어 있는 것 같지만, 찬찬히 살펴보면 해바라기의 꽃씨들이 시계 방향이나 시계 반대 방향으로 나선형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 이유는 바로 피보나치 수열을 따라 배열을 해야 좁은 공간에 가장 많은 해바라기 씨를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물에서 잎이 돌아나는 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의 잎이 돌아나는 차례를 살펴보면 여기에도 피보나치 수열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야 잎이 돌아날 때 위쪽에 있는 잎에 가리지 않고 아래쪽 잎도 햇빛을 최대한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나뭇잎들이 서로 먼저 햇빛을 많이 받으려고만 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래쪽에 있는 나뭇잎은 햇빛을 받지 못해 시들고 말았을 겁니다. 나뭇잎도 햇빛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 위쪽의 잎만이 아니라 나뭇잎 전체의 입장을 고려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러한 자연 현상에서 배울 점은 자신만의 이익을 뒤로 하고 전체로서 최적의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4. [사실적 정보의 확인하기]

[출제의도] 뉴스의 정보를 사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뉴스에서 기자는 동전 제조 원가 상승의 이유로 기존 동전보다 크기와 무게, 재료를 달리한 새로운 동전을 제작한다고 하였다. 또한 10원짜리 동전이 아직 할인점 등에서 쓰이고, 10원짜리 동전을 없애면 물가 상승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을 함으로써 10원짜리 동전이 적정 가격 설정에 도움을 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처럼 소지하기에 불편하다는 언급은 나타나지 않았다.

4번. 다음은 뉴스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앵커 : 10원짜리 사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에서는 새 10원짜리 동전을 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나가 있는 손 기사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손 기자!

손 기자 : 네, 손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은 구리 값 인상으로 제조 원가가 높아진 현 10원짜리를 새 동전으로 교체하기로 결정하고 재질과 크기 등을 검토해 왔습니다. 새 동전의 제조 원가는 개당 5~6원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동전 가격인 24원의 4분의 1 이하입니다. 새 동전의 크기는 18mm로 지금 것보다 작고, 무게는 1.2g으로 훨씬 가벼워집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동전 교체로 동전 제조 비용을 연간 40억 원 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원짜리 동전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10원짜리 동전을 쓸 데가 없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측은 10원짜리의 사용 가치는 아직 높다고 주장합니다. 상품 가격이나 공공요금을 50원이나 100원 단위로 할 경우 인상이 너무 커져 물가가 급등하는 부작용이 생기고, 적절한 가격을 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이 경우 소비자들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 10원짜리 동전의 쓰임새는 아직 많습니다. 대형 할인점에서 990원짜리 물건을 판매할 때 10원짜리가 적지 않게 필요합니다. 동네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도 봉투를 20원에 팔고 있습니다. 이처럼 10원짜리 동전은 셈을 치르는 기능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5. [토론의 공통 전제 파악하기]

[출제의도] 토론자의 공통적인 전제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토론에서 박 교수는 기업 채용 시험에서 한자 능력을 측정하게 될 경우 우리말을 소홀히 여기게 될 우려를 지적했다. 여기에 대해 김 이사도 우리말이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했다. 따라서 두 토론자가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은 ①이다. ②, ⑤는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아니라, 한쪽의 주장만을 반영하고 있다.

6. [토론의 핵심 주장 파악하기]

[출제의도] 토론자의 주요 주장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토론에서 박 교수는 중국어나 일본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오히려 동북아 무역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즉, 입사 시험에 지원한 모든 사람들에게 한자 시험을 보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입장이므로 ⑤와 같이 외국어 교육을 대중화한다는 주장은 박 교수의 입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5-6번. 이번에는 ‘기업 입사 시험에 한자 시험을 채택하는 문제’에 대한 토론의 일부를 듣게 됩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자 : 안녕하세요, 시사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업 입사 시험에서 한자 시험을 치르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 시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한국기업 김 이사님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 이사 : 최근 많은 기업들이 신입 사원 채용 시험에서 한자 시험을 포함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기업들이 실제 경제 현장에서 한자 지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겁니다. 중국이나 일본은 우리 수출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최대 경제 교역국이지요. 또한 중국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대외 투자국이기도 합니다. 한자를 많이 알면 중국인이나 일본인과의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북아 국가들과의 무역 진흥을 위해서라도 입사 시험에서 한자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그렇군요. 박 교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 교수 : 네,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기업 입사 시험에 한자 능력을 반영하면 취업을 앞둔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부담이 될 겁니다. 실제로 중국과 일본에서 쓰는 한자는 우리나라에서 쓰는 한자와 많이 다릅니다. 결국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문자를 하나 더 익혀야 하는 셈인 것이지요. 입사 시험을 위해 한자 공부에 열중하다보면 오히려 우리말을 소홀히 할 우려도 있습니다.

김 이사 : 우리말이 중요하다는 사실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저는 한자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동북아 경

제의 중심 국가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한자 문화권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과 일본은 우리 수출 시장의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국이기도 합니다. 그뿐인가요.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관광객 중 한자 문화권에 사는 사람이 70%를 넘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박 교수 : 동북아 무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중국이나 일본과의 교역을 담당할 사원을 중심으로 중국어와 일본어를 교육하는 것입니다. 영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영어가 필요 없는 직업군에게까지 영어를 강요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지원자 모두에게 한자 능력을 요구하기보다는 실무를 담당할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중국어나 일본어를 교육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국익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쓰 기 -

7. [주제 연상하기]

[출제의도] 주어진 정보를 보고 주제를 연상하는 문제이다.

[해설] <보기>의 그림에서 세 잎 클로버와 네 잎 클로버는 다르지만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문구에서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고 했으므로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의미, 개성을 존중하는 의미, 서로 배려하며 더불어 사는 의미를 연상할 수 있다. 그러나 ⑤와 같이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의 의미는 찾을 수 없다.

8. [개요 수정하기]

[출제의도] 주제에 맞게 개요를 수정 보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Ⅱ-3-나’는 모조품이 유통되고 있는 문제 원인과 관련이 있으므로 ②와 같이 ‘Ⅱ-2’로 이동하는 방안은 부적절하다. ③은 합리적 소비 행위의 의미가 추상적이고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하기 위해 ‘Ⅱ-3-가’의 원인을 고려하여 ‘명품 선호 의식의 불합리성 홍보’로 수정하는 것은 구체성도 있고 일관성도 있으므로 타당하다.

9. [사고 전개 과정 확인하기]

[출제의도] 글감에 따라 사고를 올바르게 전개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담 건설’이라는 글감으로 각각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서 글을 쓰기 위해 ‘주장-근거-예상되는 반론-반박’의 과정에 따라 사고를 전개하고 있다. ㉔은 ‘담 건설은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소규모 담 건설로 생태계 피해를 줄일 수 있다.’라는 반론으로 적절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㉕처럼 ‘소규모 담 건설은 이해당사자의 합의 도출이 어렵다’라는 논거는 적절한 반박이라고 볼 수 없다. 적절한 반박이 되려면 ‘소규모 담 건설도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는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10. [조건에 맞게 표현하기]

[출제의도] 조건에 맞게 시를 완성하는 문제이다.

[해설] ⑤에는 ‘햇살 같은 노래’에서 비유가, ‘노래를 함께 부르리’에서 동행의 의미가 들어 있으며, 어조도 ‘~리’로 주어진 시의 어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①은 어조와 비유가, ②와 ③은 ‘동행’의 의미가, ④는 어조와 ‘동행’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11. [자료 활용하기]

[출제 의도] 글을 쓰는 과정에서 주어진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

[해설] ㉑와 ㉒를 비교해 보면, GNP 순위가 상위권 나라들이 오히려 행복지수가 낮고, 경제 분야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나라들이 상위의 행복지수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보기>는 ①과 같이 경제 수준은 행복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 자료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그러나 ③은 ㉑, ㉒ 자료 간의 연관성을 유추하기가 어렵다.

12. [고쳐 쓰기]

[출제의도] 고쳐 쓰기 방안의 적절성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해설] <보기>는 지역 축제 문화의 현황 및 소개, 지역 축제 문화의 문제점, 해결 방안이라는 세 문단으로 되어 있다. ㉠은 앞 문단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문장이 아니라, 지역 축제의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문단의 내용이 전환되는 부분이므로 ㉢처럼 앞 문단에 이어주면 연결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따라서 그대로 두는 것이 오히려 더 적합하다.

13. [어법 이해하기]

[출제의도] 문장의 중의적 표현의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해설] 문장의 중의적 표현의 해결 방안은 문장 내에서 수식어의 이동에 의한 방법, 범표에 의한 방법 등이 있다. ㉣에서 성분의 이동과 범표에 의해서 의미는 명확해졌지만, 관형어 '용감한'의 주체는 '아버지'가 아니라 '그'인데, ㉤는 '용감한'의 주체가 '아버지'이므로 서로 뜻이 같은 문장이 아니다. ㉥의 '엄청난 시간과 돈'은 '시간'과 '돈' 중 어느 것이 엄청난 것인지 모호하므로 중의적 표현이다.

14. [어휘의 의미 파악하기]

[출제의도] 문장에서 동음이의어에 해당하는 어휘의 반의어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해설] 동음이의어는 문장에서 반의어를 통해 오히려 그 의미가 더 명확해진다. '김장 독을 묻다'에서의 '묻다'는 '물건을 흙 속에 덮어 감추다'는 뜻이므로, 그 반의어는 '파내다'이다. '때가 묻었다'에서 '묻다'는 '다른 물건에 들러붙다'는 뜻이므로, 그 반의어는 '지다'이다. '안경을 껴더니'에서 '끼다'는 '착용하다', '김이 잔뜩 끼었다'에서 '끼다'는 '서리다'의 뜻이므로 반의어는 각각 '벗다'와 '걸히다'이다.

- 현대시 -

[15-18] 출전 : (가) 윤동주, '눈감고 간다'

(나) 조지훈, '마음의 태양'

(다) 안도현, '우리가 눈밭이라면'

15. [작품의 공통점 파악하기]

[출제의도] 작품의 주제를 바탕으로 공통점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해설] (가)는 '식민지 시대를 살아가는 바람직한 삶'을 형상화한 시이고, (나)는 '괴로움과 고난을 이겨내는 맑고 높은 정신 자세'를 그린 시이며, (다)는 '세상의 고통을 낫은 자리에서 함께 극복하자'는 뜻을 담은 시이다. 따라서 (가), (나), (다)는 '부정적 상황을 극복하는 긍정적인 가치'를 공통적으로 그리고 있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은 ㉢인데, 이는 '겨울'이라는 부정적 상황 속에서 '무지개'라는 긍정적 가치를 찾는 의미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은 긍정적 가치가 없으며, ㉤는 시련이라는 부정적 의미가 없다.

16. [작품에 대해 감상하기]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을 현실과 연관하여 감상하는 문제이다.

[해설] [A]의 관점은 시대적 현실을 고려하여 작품을 이해하는 관점이다. 화자가 처한 암울한 상황을 나타내는 '밤'은 곧 현실의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 정답이 된다. ㉡는 작자의 고고한 정신세계와 연관하여, ㉢은 독자에게 깨달음을 주는 측면을, ㉣와 ㉤는 작품 자체의 미적 요소를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17. [발상과 표현의 공통점 찾기]

[출제의도] 시구의 표현에서 발상과 표현의 유사한 점을 찾는 문제이다.

[해설] ㉠은 '어두운 밤'에 '눈감고 가라'는 모순된 표현을 통해 '부정적인 현실에 의연하게 대처하라'는 의미를 역설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은 '슬픔은 오히려 아름다

운 것이'라는 모순된 표현을 통해 '슬픔을 웃음으로 이겨내어 희망의 세계로 나아가라'는 의미를 역설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과 ㉢은 발상과 표현이 유사하다. ㉡는 직유, ㉣는 의인, ㉤는 은유로써 다른 대상에 빗대어 의미를 전달하는 비유적 표현들이다.

18. [화자의 태도 파악하기]

[출제의도] 작품 속에서 화자의 태도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해설] (나)의 화자는 '현실적인 고통을 긍정하고 인내하는 모습'에 주목하면서 '맑고 높은 정신적인 자세'를 중요시한다. 그런데 ㉢에서는 (나)의 화자가 상대와는 다른 입장에서 올바른 삶의 태도를 요구한다고 했으나 그런 입장을 확인할 수 없고, (나)의 내용에서 이기적인 화자의 모습을 찾기도 어렵다.

19. [시어의 함축적 의미 파악하기]

[출제의도] 작품 속에서 시어의 함축적 의미의 공통점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해설] (가)에서 ㉠은 화자가 '밤'이라는 부정적 상황에서 추구하는 긍정적인 가치로 '꿈'이나 '희망'을 의미한다. (다)에서 화자는 '바람 불고 춥고 어두운 세상'이라는 부정적 상황에서 위로를 의미하는 '편지'와 희망을 뜻하는 '새살'을 추구한다. '진눈깨비'는 '함박눈'의 상대적 개념이며, '바람'은 일종의 시련의 의미이다.

- 인문 제제 -

[20-23] 출전 : 이인식, 「세계를 바꾼 20가지 공학기술」

20. [세부 정보 확인하기]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제시문은 서구 근대화 과정에 역사적 기여를 한 구텐베르크 인쇄술에 비해 우리나라 금속 활자 인쇄술의 가치가 평가 절하되는 것에 대해 필자 나름대로 근거를 내세워 반박하고 있다. 즉 우리 금속 활자 인쇄술도 조선 시대 유교 문화를 구축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주장을 펼치는 글이다. ㉠은 둘째 문단에서 '성서를 읽는 것이 극히 제한되었다'는 내용에서, ㉣는 '서양의 금속 활자 인쇄술로 인해 성서의 대중화가 가능하게 되었고, 이는 곧 절대 권위의 하락과 근대화를 촉발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처럼 평민층에까지 서적이 보급된 것은 조선 시대가 아니라 서구 사회의 경우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21. [글쓰기 전략 파악하기]

[출제의도] 글의 서술상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제시문은 서구의 인쇄술과 우리의 인쇄술을 비교하여 서구 사회의 잘못된 인식에 대해 역사적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비판하면서 '우리 인쇄술도 조선시대 유교 문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따라서 적절한 글쓰기 전략에 해당하는 것은 ㉡이다.

22. [대상의 공통 특성 파악하기]

[출제의도] 대상의 공통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의 발명으로 서구 사회에 대량의 서적이 유포되어 서민층에까지 지식의 보급이 이루어짐으로써 서구 사회의 근대화 과정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의 발달로 근대화 전 단계인 조선시대에 사대부 지식인층에게 대량의 서적이 보급되어 유교적 이상 국가 건설이라는 역사적 변화를 낳는 데 기여하였다. 따라서 두 인쇄술의 공통점은 ㉤이다. 그러나 ㉠은 서구에만 해당되며, ㉣는 인쇄술이 다른 과학 기술의 발달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제시문에 없다.

23. [정보의 비판적 확인하기]

[출제의도] 논지를 바탕으로 정보를 비판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의 견해는 자신만의 입장에서 다른 문화를 바라보면서 다른 문화의 역사적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평가를 절하하는 관점이다. 즉 서양에서는 인쇄술의 영향으로 근대화를 이루었다는 현상적 결과만 주목하고 근대화가 상대적으로 뒤진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금속 활자 인쇄술을 폄하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필자는 다른 문화에 대해서는 그 문화의 역사적, 시대적 상황을 모두 고려한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은 어떤 시대든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대상을 평가해야 한다는 내용이므로 필자의 논지를 벗어나는 비판이다.

- 현대 소설 -

[24-28] 출전 : 박상률, 「봄바람」

24. [공간적 배경의 상징적 의미 이해하기]

[출제의도] 작품 속에 나타난 공간적 배경의 상징적 의미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보기>에서 (a)는 염소의 죽음으로 인해 주인공이 벗어나고 싶은 공간이 되고, (b)는 '사랑, 추억, 희망, 성공'을 새기는 것을 통해 바깥 세계에 대한 동경의 대상이 됨을 알 수 있고, (c)는 희망을 품고 간 공간이지만 소매치기를 당해 좌절을 맞본 공간이 된다. 그러나 (d)는 고생 후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해당하므로 의욕을 다지는 공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에서 (c)를 거친 (a)는 도회지에서 쓰러린 경험을 통해 나름대로 주인공의 자아가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공간이다. 마지막 부분의 '뜨거운 눈물'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25. [작품 감상하기]

[출제의도] 협동학습을 통한 작품 감상의 타당성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해설] 이 작품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어서 '나'의 심정을 나타내기에 적합하다. 작품 속에 사용된 방언들은 현장감과 생동감을 더해 주며, 주인공을 둘러싼 주변 인물들은 주인공에 대한 차가운 시선이 아니라 따뜻한 애정을 보내고 있다. 또한 주인공은 '꽃치'가 비록 떠돌아다니는 처지지만 의식주가 다 해결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한다. 그러나 작품 속에 나타난 노래 가사의 내용은 가출 동기와는 무관하며 주인공의 착잡한 심정을 드러내는 데 기여하고 있다.

26. [성장 소설의 의미 이해하기]

[출제의도] 작품 속에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작품의 핵심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해설] 13세의 주인공이 가출을 통해 깨닫게 되는 정신적 성숙 과정은 마치 새가 껍질을 깨고 바깥 세계로 나온 것과 같다. ㉢의 '눈물'은 고마움에 대한 단순한 반응이지만, ㉤의 '뜨거운 것'(눈물)은 고통을 통한 성숙의 의미가 담겨 있다.

27. [등장인물의 성격 이해하기]

[출제의도] 작품 속 인물의 행동을 통해 성격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해설] 인용된 제시문에서 '나'는 할머니의 딸에게 도움을 받고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하게 된다. 따라서 ㉤와 같이 자신의 처지 때문에 마지못해 순응하는 이중적 성격의 인물이라는 판단은 적절하지 않다.

28. [상황에 맞게 유추하기]

[출제의도] 주어진 상황을 바탕으로 인물의 심리를 유추하는 문제이다.

[해설] ㉠은 집을 떠나기 전에 다시 푸른 목장을 간 점이나 푸른 목장이 '하얀 목장'으로 되어 있다는 대목에서 애초에는 푸른 목장에서의 꿈이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으므로, ㉡는 은주와의 인연도 끝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짐작할 수 있다. ㉢은 떠나기에 앞서 들국화를 꺾었던 자리를 발로 뒤적여 보거나 그 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행동에서 미련의 심정을 파악할 수 있다. ㉣은 은주를 두 번 외치거나 염소를 늘 매어 놓던 자리를 발로 뒤적여 보는 행동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와 같이 주

인공이 목장 일을 지긋지긋하게 생각했다는 것은 [A]에서 짐작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나는 먼저 푸른 목장으로 갔다'는 부분에서 주인공은 푸른 목장에 대한 애착을 유추할 수 있다.

- 기술 제재 -

[29-32] 출전 : 최성우, 「상상은 미래를 부른다」

29. [사실적 정보를 확인하기]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정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본문에 의하면 ㉠은 2문단에서 기존의 플라스틱의 단점을 언급한 부분에서 알 수 있으며, ㉡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 내충격성을 가지고 있어 기존의 세라믹을 대체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은 대장균을 이용한 플라스틱의 생산 방법이 우리나라에서 연구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나 광분해성 플라스틱을 언급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플라스틱 화폐가 사용 연한이 길다는 정보는 언급되었으나 ㉣와 같이 개발 비용이 비싸 경제성이 없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30. [심화 학습을 통한 정보의 이해하기]

[출제의도] 글에 제시된 정보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거나 추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심화 학습은 본문 내용으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거나 논지를 반박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대상이다. ㉠의 합성수지 플라스틱의 재료는 1문단에 이미 제시되고 있어 심화 학습의 대상으로는 부적절하다. 반면, 제시문에 의하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정보가 있고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므로 심화 학습의 주제로 타당하다. 마찬가지로 플라스틱 화폐의 원리나 스마트 원도가 반응하는 빛의 종류, 광분해성 플라스틱과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차이점을 알아보는 활동은 본문을 깊게 이해하는 활동으로 적절하므로 심화 학습의 주제로 타당하다.

31. [정보의 핵심 요소 파악하기]

[출제의도] 대상이 지닌 핵심 요소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은 최첨단 플라스틱인 전도성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므로 이를 광고할 때 포함되어야 할 광고 문구는 당연히 전도성 플라스틱의 장점이 잘 드러나는 속성이어야 한다. 따라서 전도성 플라스틱의 특성인 경량성과 형태를 자유자재로 변형 가능한 성형성을 강조하여야 한다.

32. [정보에 내재된 원리를 이해하기]

[출제의도] 대상의 제작 원리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식물 플라스틱을 만드는 과정에 해당하는 글을 그림으로 제시하고, 그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그림에서 '플라스틱 박테리아의 유전자 이식→식물의 성장(플라스틱 증식)→플라스틱 생성'의 과정을 그린 것이다. 따라서 ㉠은 플라스틱 박테리아, ㉡는 식물, ㉢은 플라스틱 박테리아가 식물 속에서 성장한 것이며, ㉣는 결과적으로 생산된 플라스틱이다. 따라서 ㉣는 잘못된 이해이다.

- 언어 제재 -

[33-36] 출전 : 이문규, 「외래어와 우리말 다듬기」

33. [글의 논지 파악하기]

[출제의도] 글의 논지에 대한 반응이 적절한지 파악하는 문제이다.

[해설] 필자는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을 경계하면서 일종의 '문화적 사대주의'를 비판하

고 우리말을 소중히 여기자고 말하고 있다. 아울러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된다면 우리말이 사라질 위험에 처할 것이니 고유어를 살려 써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⑤는 필자가 우려한 '세계화 시대로의 변화' 속에서 '외국어 사용이 늘어나는 현실'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 '가능하면 고유어를 살려 쓰자.'는 필자의 논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반응이다.

34. [전제 추론하기]

[출제의도] 글쓴이의 생각에 전제된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해설] 필자는 첫 문단에서 '언어가 거래의 삶과 문화를 반영한다.'고 전제하고 '외래어가 들어오는 과정은 토박이말을 대체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A]에서 '쌀' 대신에 '라이스'를 사용되는 경우는, '쌀'이 반영하는 거래의 삶과 문화가 '라이스'를 사용하는 다른 민족의 문화로 바뀔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므로 전제된 생각으로 ①이 타당하다.

35. [세부 정보 적용하기]

[출제의도] 세부 정보를 뒷받침하는 사례를 찾는 문제이다.

[해설] ㉠은 일본식 한자어나 외래어 대신에 우리 고유어를 살려 쓰는 것을 말하므로 일본식 한자어인 '노건'이나 '고수부지'를 '갯길'과 '둔치'로 대체하는 것은 사례로 적절하다. 또한 '서클'과 '나시'는 외래어이므로 '동아리'와 '민소매'라는 고유어로 바꾸는 것도 적합한 사례이다. 그러나 ①의 '얼굴'이나 '낮'은 모두 고유어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36. [다의어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출제의도] 문장 속에서 다의어의 문맥적 의미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은 '형제나 수준 등이 낮아지다'는 의미인데 이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은 ⑤이다. ①은 '시험에 뽑히지 못하다', ②는 '헤어지다', ③은 '수준이나 정도가 못하다', ④는 '셈에서 남아 처지다'의 의미이다.

- 고전 시가 현대 수필(복합) -

[37-41] 출전 : (가) 작자미상, '가시리'

(나) 작자미상, '사설시조'

(다) 계용묵, '구두'

37. [작품의 특성 파악하기]

[출제의도] 작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나)에서는 '주추리 삼대'를 임으로 오해한 상황이 잘 나타나고 있으나, (가)에서는 오해의 상황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정답은 ①이다. (나)는 정신없이 입을 만나러 가는 상황에서 '곰비넵비', '천방지방'과 같은 의태어를 활용한 속도감이 잘 나타나 있다. (다)는 오해를 풀기 위해 걸어가 는 나와 오해를 하고 빠르게 걸어가 는 여자 사이의 긴박감이 '또각또각', '또그닥또그닥'과 같은 의성어에 의해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므로 ④, ⑤는 적절한 설명이다.

38. [감상의 적절성 파악하기]

[출제의도] 작품을 비교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보기>의 화자는 입을 떠나보낸 후 그리워하고 있다. 그 속에는 후회의 심정과 안타까운 심정이 드러나 있다. (가)는 입과 이별하는 상황에서 슬픔을 인내하며 떠나는 입을 보내려 한다. (나)는 입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화자의 심정이 드러나 있다. 따라서 <보기>의 화자가 ②, ③, ④, ⑤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상황적으로 볼 때 타당성이 있으나, ①은 현재 입과 이별하려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한 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39. [비판적으로 반응하기]

[출제의도] 작품 내용에 대해 비판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A]에서 필자는 여자가 자신을 불량배라고 영원히 알고 있을 것에 대해 서글픔을 느낀다고 했으며, 여자를 대할 때는 의도하지 않은 상황도 고려해야 할 정도로 별의별 것까지 신경 써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필자의 생각에 대해 독자 입장에서 제기할 수 있는 의문으로 ①, ③, ④, ⑤는 타당성이 있으나 ②와 같이 구두 징을 뽑아 버린 필자에게 '새 구두를 사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묻는 것은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반응이다.

40. [상황에 맞는 유사 사례 찾기]

[출제의도] 상황에 맞는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다)에서는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구두 징 소리로 인해 여자의 괜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 나타난 것은 ⑤이다.

41. [시어의 기능 파악하기]

[출제의도] 작품 속에서 시어의 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나)의 '주추리 삼대'인데, 화자는 '주추리 삼대'를 임이라고 생각해서 버선과 신발을 벗어 들고 뛰어 나가고 있다.

- 사회 제제 -

[42-46] 출전 : 김위찬, 르네 마보안 공저, 「블루오션 전략」

42. [핵심 내용 파악하기]

[출제의도] 본문을 읽고 핵심 개념의 특성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해설] 레드오션은 기존의 경영 전략에 나타나는 특성으로 공급 과잉이나 기존 시장의 활용, 산업 간 경계선 구축 등의 특징을 지닌다. 이에 반해 블루오션이란 새로운 시장 개척을 통한 수요를 창출하고 산업 간 경계선을 해체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③에서 블루오션은 발상의 전환을 통한 독자적 영역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블루오션의 특성을 경쟁 위주로 파악한 것은 잘못된 이해이다.

43. [핵심 내용의 적절한 사례 찾기]

[출제의도] 핵심 내용에 대한 적절한 사례를 찾는 문제이다.

[해설] 블루오션은 기존 산업의 경계선 밖에서 완전히 새롭게 창출하기도 하고 기존 산업을 확장하여 만들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발상의 전환, 즉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⑤는 기존의 방식대로 경영하는 예이고, ④는 발상의 전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예에 해당한다.

44.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출제의도]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보기>는 기업의 경영 전략에 대한 그래프이다. 블루오션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본문 마지막 단락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구매자와 기업에 대한 가치를 비약적으로 증대시키고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그러므로 ㉠기업과 같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한계 상황에 처한 실적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블루오션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따라서 ㉠의 영역과 같이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비용을 낮추는 영역을 추구해야 한다.

45. [정보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하기]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하게 반응하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본문 내용에 의하면 레드오션도 패러다임 전환을 하면 블루오션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또 계속 노력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레드오션으로 추락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시대의 변화를 읽고 미리 대처하는 것도 중요함을 유추할 수 있다. 또 블루오션은 경쟁기업이 없기 때문에 초기에는 해당 영역의 시장을 독차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블루오션은 분명 새로운 것이지만 블루오션 자체가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라는 내용이 네 번째 단락에 있으므로 21세기에 새롭게 등장한 경영 전략이라는 ①의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46. [어휘의 구조 파악하기]

[출제의도] 합성어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가 묻는 문제이다.

[해설] <보기>와 같이 '목적어(인정술)+서술어(반다)'의 구조로 되어 있는 합성어는 ④이다. '애쓰다'는 '애를 쓰다'와 같이 '목적어+서술어'의 구조로 되어 있다.

- 고전 소설 -

[47-51] 출전 : 박지원, '예덕선생전'

47.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출제의도] 작품 속 인물의 말하기 방식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자목'은 스승인 '선글자'에게 천한 일을 하는 '엄 행수'를 가까이한다고 따져 묻고 있다. 이에 대해 '선글자'는 하는 일과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는 '자목'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고 있는데, ⑤와 같이 '엄 행수'의 구체적인 생활상을 예화로 들어가며, 도의에 어긋남이 없어 벗으로 존경하기에 부족하지 않다고 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48. [인물의 성격 파악하기]

[출제의도] 인물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중심 인물인 '선글자'의 생각은 '엄 행수'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에서 파악할 수 있다. '선글자'는 자신의 일에 충실하고, 사는 집과 먹는 것, 입는 것들에서 분수를 지키는 '엄 행수'의 행실이나 인품은 도의에 어긋남이 없고 존경하기에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본문에서 '목구멍에 넘어가면 푸성귀나 고기나 배를 채우기는 마찬가지인데 맛을 따져 무엇 하겠느냐?'는 대목을 볼 때 ⑤는 적절하지 않다.

49. [인물의 삶의 태도 파악하기]

[출제의도] 작품에 드러난 인물의 삶의 태도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은 시간을 초월하여 옛 선인들과 사귀는 삶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삶의 태도가 나타나 있는 것은 ①인데, 옛 선인들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태도가 잘 나타나 있다. ④는 대상이 달이고, 또한 달의 덕성을 예찬하고 있으므로 적절치 않다.

50. [단어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출제의도] 작품 속의 핵심적인 단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은 겉으로는 더러워 보이지만 속에 담긴 뜻은 도의에 어긋남이 없는 '엄 행수'의 덕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와 통하는 것은 ⑥의 '막일꾼'이다. ③은 선글자와 사귀기 위해 사대부들이 스스로 낮추고자 하는 태도로 겉으로 행세하기 위해 하는 태도와 관련이 있다.

51. [창작 의도 파악하기]

[출제의도] 문학 작품을 읽고 작자의 창작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본문에 의하면 '자목'은 양반들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인물이고, '선글자'는 '자목'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는 인물이다.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얘기되는 인물이 '엄 행수'인데, 비천한 신분으로 더러워 보이는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를,

작자는 '선글자'의 입을 통해 도의에 어긋남이 없는 존경해야 할 인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⑤와 같이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며 도의를 따지는 양반들이, 막일꾼으로 살아가지만 분수에 어긋남이 없이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들보다 오히려 못하다는 작자의 비판 의식을 엿볼 수 있다.

- 예술 제재 -

[52-55] 출전 : 「월간 미술」(2003년 3월호)

52. [글의 중심 내용 파악하기]

[출제의도] 글을 읽고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본문은 사람들이 만화를 즐겨 읽는 이유를 만화의 특성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만화는 재미있다는 점과 가볍다는 점, 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다는 점, 칸과 칸 사이에서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자극하고 한 눈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본문은 궁극적으로 만화의 특징, 즉 고유한 속성을 설명하는 글이라고 할 수 있다. 답은 ①이다.

53. [주어진 정보 적용하기]

[출제의도] 주어진 정보를 활용하여 구체적 대상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본문에서 만화는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유머나 상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특징이 있다고 했다. 따라서 ①과 ④의 반응은 타당하다. 또한 만화 매체로서의 본질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회화성과 그래픽 요소도 중요하다고 했으므로 ②와 ⑤도 적절한 반응이다. 그러나 칸과 칸 사이에서 독자의 자유로운 상상이 만화의 특징인 것에 비추어 볼 때, ③과 같이 독자의 상상이 배제된다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54. [문맥을 고려한 내용 추론하기]

[출제의도] 문맥적 흐름을 고려하여 특정 구절의 의미를 파악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만화는 작가와 독자 사이에 쌍방 소통적 요소가 중요하여 독자의 적극적이고 참여적인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고 했다. ㉠에서 만화를 텔레비전과 더불어 쿨 미디어로 정의한 이유도 바로 만화의 이런 속성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②가 적절한 추론이다.

55. [어휘의 의미 파악하기]

[출제의도] 고유어에 대응하는 한자어를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문맥적으로 볼 때 ㉡의 의미는 '경시(輕視)'가 적합하다. '경도(傾倒)'는 '한 쪽으로 기울여 쏟음. 넘어서 엎어짐'의 의미를 지닌 단어이다. ㉢는 '(마음 속이나 머릿속에 뚜렷하게 기억되어) 오래 잊혀지지 않게 됨', ㉣는 '여럿 중에서 가려서 좋아함', ㉤는 '문제·의미·단서 따위를 발견하다', ㉥는 '서로 나누어 떨어짐. 또는 그리되게 함'의 뜻을 지닌 단어이다.

- 과학 제재 -

[56-60] 출전 : 한국과학문화재단, 「교양으로 읽는 과학의 모든 것 I」

56.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출제의도] 본문에 사용된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해설] 식물의 꽃이 피는 시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계절에 맞추어 꽃을 피우며, 식물이 계절적인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나를 질문하는 방식에 따라 화제를 이끌어 가고 있는 글이다. 그리고 구체적 사례를 들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으며, 핵심 개념인 광주기성과 피토크롬에 대하여 분석의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식물을 임계

암기에 따라 구분지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④는 유추에 대한 설명인데 본문에서 확인할 수 없다.

57. [정보를 다른 대상에 적용하기]

[출제의도]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 후 이를 다른 대상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보기>는 식물의 개화 정도와 밤낮의 길이에 따른 식물 종류에 관한 그래프이다. 본문의 내용으로 볼 때, (가)는 단일 식물에 관한 그래프이고, 그림 (나)는 장일 식물을 나타낸 그래프이므로 ①은 틀렸다. 또, (가)는 낮보다 밤이 길어질 때, (나)는 밤보다 낮의 길이가 길어질 때 꽃이 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③도 틀렸다. ④는 본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으며, 식물은 단일, 장일, 중일, 중성식물로 나눈다고 했으므로 ⑤도 틀린 진술이다. (가)는 늦여름이나 가을에 피는 꽃인 국화, 코스모스가 해당되며, (나)에는 늦봄이나 여름에 개화하는 시금치, 상추 등이 속하므로 ②는 올바른 이해이다.

58. [비관적으로 이해하기]

[출제의도] 핵심 내용을 확인하고, 주어진 정보에 대해 비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본문에 의하면 식물은 개화에 필요한 최소한의 암기 시간인 임계 암기에 따라 개화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광주기에 따라 개화한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보기>에 의하면 겨울 호밀은 장일식물이 아니며 광주기에 관계없이 개화한다고 나와 있다. 그리고 저온 처리를 하면 봄 호밀처럼 장일 조건에 반응하여 일찍 개화한다고 진술되어 있다. 그러므로 광주기 외에도 다른 요인, 예를 들면 온도 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한 ①이 적절한 의문이라고 볼 수 있다.

59. [핵심 정보 파악하기]

[출제의도] 주어진 정보를 도식화하여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해설] <보기>는 식물의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피토크롬이 작용하는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본문에 의하면 피토크롬은 Pr과 Pfr의 두 형태로 존재하는데 적색광은 Pr을 Pfr로 전환하게 하며, 원적색광은 Pfr을 Pr로 전환시킨다고 나와 있다. 따라서 ㉠은 적색광이며, ㉡는 원적색광이다. 또 태양빛은 적색광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식물이 빛에 노출되면 Pfr의 양이 증가하고 밤이 되면 Pfr의 농도가 감소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보기> 그림에서 Pfr이 가장 절정인 단계인 ㉢는 낮임을 알 수 있고, Pr이 절정인 ㉣는 밤임을 알 수 있다.

60. [핵심 정보 적용하기]

[출제의도] 핵심 정보를 실생활에 적용한 예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해설] 식물의 광주기성에 대한 지식을 이용하여 실생활에서 생물에 적용한 예가 아닌 것을 찾아보는 문제이다. 즉 낮과 밤의 길이를 길거나 짧게 유도하여 생물의 생체 시계를 인위적으로 조절한 예가 아닌 것을 찾으려 한다. ④는 낮과 밤의 길이를 조절한 것이 아니라 비닐하우스를 통하여 보온성을 높였으므로 광주기성과 직접적 관련이 적다고 할 수 있다.